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학부



Cool Head
Warm Heart

경제학부 소식 제14호 2006년 1월



CONTENTS

동문 기고 04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임교수 인사말 06

1. 최병선 교수
2. 황윤재 교수
3. 박지형 교수

경제학부 소식 12

1. 교무
2. 학생
3. 입시
4. 행사

학생 기고 15

1. 이상주
2. 고영우



한 덕 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불과 40여년 만에 100배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으로써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경제적 업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적인 최빈국이 이제는 11대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앞으로 도 계속 순탄하게 이어질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최근 우리 앞에 놓인 일련의 과제와 환경 변화들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 환경 변화는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선진 경제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그간의 변화와는 뚜렷한 차별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도도한 흐름과 변화를 수용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의 물결과 미래 과제들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화의 흐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적 상호 의존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가간의 경쟁과 갈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지구촌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제적 환경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지식화 사회로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제적 부의 원천은 노동(L)과 자본(K)의 단순한 투입량 확대보다는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의 축적에 따른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

(mobility)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풍부한 국제 자본과 더불어 우수한 인적자원(Human Capital)을 양성·유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의 확보가 긴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경제는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두 가지 과제에 새롭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입니다.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지식정보화시대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대두의 와중에 더욱 불거진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성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의 길을, 그리고 성장활력의 회복과 더불어 장기적 성장동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할 미래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 상황입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이 이를 맞이한다면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천문학적 통일 비용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를 직면함에 있어서, 두려움은

변화를 두려워 말고 도전에 심취하라.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워할 때 이미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의 과제와 그에 필요한 변화를 직시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미래의 창조적 개척자가 되겠다는 자세로 다가 오는 과제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맞부딪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창조적 혁신”을 이루어 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미래를 위한 개인적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빠른 변화에 휘둘러 다 보면 자칫 기본이 흔들리거나 무너져 특정한 사조에 쉽게 빠지거나, 좌로나 우로 치우쳐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난제와 변화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충실한 기본 쌓기에 게을리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 주길 간곡하게 충고합니다. 경제학에서 수요-공급이 모든 이론의 기초가 되듯이,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학문적 기초야말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이해하고 미래의 발전적 변화를 창조해 내는 밑거름이 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은 더 넓은 세계로 과감하게 뛰어들어 실력으로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 ‘경쟁력 있는 나’를 키워 나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구촌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국제적 마인드의 함양이 필요합니다. ‘압축성장’과 ‘압축민주화’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 사회, 정치의 바탕을 이루는 ‘제도 (institution)’와 ‘의식’의 국제화는 우리 경제와 민주화의 진전 정도에 비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제어 사용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지식, 전반적인 태도와 의식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 지식화, 세계화라는 미래의 피할 수 없는 도전 앞에서 제대로 준비된 “세계인으로서의 한국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과 국경의 의미가 빠르게 퇴색하고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국제적 조류를 읽는 안목과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전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간 선배들이 땀으로 가꿔온 열매를 의미 있게 소화하고, 더 나은 열매와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위해 보다 더 넓은 지평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약 력

1. 학력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1984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197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71

2. 주요경력

국무조정실장, 2004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1998



최 병 선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부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새로 부임한 최병선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955년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후, 서울로 올라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되던 1975년 서울대의 관악캠퍼스 시대가 열렸고 저는 남은 2년의 대학생활을 관악캠퍼스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관악캠퍼스가 여러 면에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어설픈 단계였고, 유신이라는 그림자가 항상 젊은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시절이어서 관악캠퍼스에서 그리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1977년 2월 수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 6월 미국의 Stanford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983년 6월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석사, 경제학석사 그리고 통계학(주전공) 및 경제학(부전공)으로 박사를 받은 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와의 조교수로 부임하여, 부교수와 정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번에 경제학부에서 재무경제학 담당교수로 불러주시어 관악으로 다시 돌아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학문적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지도교수인 Thomas M. Cover교수를 만난 것입니다. Cover교수는 Stanford대학에서 통계학과, 재무수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능력이 출중한 학자로서, 정보통신분야에서 획기적인 논문들을 발표한 공로로 전자공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Shannon상과 Hamming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Cover교수는 재무이론 분야에서도 꾸준한 연구를 해왔으며, 1991년에는 'Mathematical Finance' 창간호에 universal portfolio라는 독창적인 재무이론을 제안하였고, 1999년 여름 실리콘밸리에 투자자문회사를 창업하여 자신의 이론을 실제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Cover교수가 이렇게 다양한 학문분야들을 깊게 섭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그의 뛰어난 직관력과 더불어 탁월한 수학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의 학부생활 동안 자신에게 순수수학을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대학원에서는 수학에 비해 응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했던 저에게 Cover교수는 응용수학이라는 수학의 새롭고 다양한 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교수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방문교수들이 모여 순수수학으로부터 정보학, 재무이론,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ISL(Information System Laboratory)의 콜로퀴엄은 저에게 응용수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ISL은 Yahoo, Google, ElGamal의 공개키 암호법(a public-key cryptosystem) 등을 탄생시켜 인류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연구집단입니다. 유학시절 ISL의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던 저는 Cover교수의 권유에 따라 수학, 통계학, 경제학, 정보이론, 신호분석과 영상분석, 통신이론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해보려고 노력하였고 귀국 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하였습니다.

유학시절 경제학 분야에서는 Nobel경제학상을 받은 Arrow교수의 일반균형이론 강의에 매료되어 있던 저는 수리적인 면에서 깊이가 다소 떨어지는 평균분산이론이나 CAPM 등 그 당시 재무학의 주된 이론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재무학을 전공하시는 동료교수들로부터 확률과정론이나 계량경제학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으면서 새로이 발전되어가는 수리재무이론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유학시절 Harrison교수가 강의한 금융확률

다시 관악으로 돌아와서

과정론에서 배웠던 동치마팅계일측도를 사용한 옵션 가치평가법이 수리재무학의 중심이론으로 정립되어가는 것을 보고, 학문적 관점에서 옥석을 가리지 못한 저 자신의 무지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학을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피일차일 미루다가 이를 실행하게 된 것은 1998년 Stanford대학으로 안식년을 갔을 때입니다. 당시, Stanford대학에서는 금융파생상품론을 공부하는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ISL의 콜로퀴엄에서 전자공학과의 한 대학원생이 Black-Scholes 식을 네 가지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Cover교수는 저의 경제학, 수학, 통계학 그리고 IT 지식을 바탕으로 수리재무를 공부할 것을 권유하였고, 또한 통계학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Lai교수 역시 응용수학과 통계학이 앞으로 나아갈 큰 줄기의 하나가 수리재무라고 말하며 저에게 같이 해보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당시 Lai교수는 이미 50대 중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분야인 수리재무를 공부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안식년 동안 Lai교수가 가르치는 수리재무론을 청강하면서 재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한 동료교수가 함께 대학원에 금융공학과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수리재무 분야의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커리큘럼을 짜는 등 금융공학과정을 만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리재무 분야의 현실을 고려해서, 재무학의 수리적 배경에 관한 책들을 집필하여 현재까지 ‘Black-Scholes방정식 입문’, ‘금융파생상품의 수리적 배경’, ‘이산형 재무모형의 수리적 배경’을 출간하였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원고로는 ‘계산재무론’, ‘금융경제학의 수리적 배경’, ‘금융공학’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결코 대중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집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리재무 분야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학부에서 수리금융경제학, 경제수학 그리고 계산재무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좀 더 굳건한 수리적 능력, 즉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통계학적 그리고 계산학적 지식을 쌓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수학이나 통계학의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학을 의사전달의 수단, 즉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경제학적 문제에 부딪힐 때, 그들이 우선 경제학적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이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는 수단으로 수리적 기법들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악으로 돌아와서 좋은 학생들 그리고 좋은 동료교수님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기에 저는 즐겁습니다. 또, 남다른 기쁨이 있다면, 매일 관악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홀로 생각에 잠길 때, 저는 가장 평온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관악산에 오르면서, 경제학부에서 선생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약 력

1. 학력

스탠포드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경제학박사), 1983
스탠포드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경제학석사), 1980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 1977

2. 주요논문 및 저서

A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spectral factorization, and stability of 2-D systems (2003), *IEEE Trans. Signal Processing* 51, pp. 853-863.
ARMA Model Identification (1992), Springer-Verlag, New York.



황 윤 재
경제학부 교수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관악의 캠퍼스는 최근에 내린 눈으로 인해 매우 아름다운 설원의 정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79학번 졸업생으로 지난 가을 학기부터 모교에서 계량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 동문들께 인사를 드림과 아울러 계량 경제학의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경제현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변수들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경제법칙들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제 법칙들은 우리들이 처한 복잡한 경제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올바르게 예측하여 현재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많은 경제법칙들은 경제학자들의 직관으로부터 도출된 추상적인 경제이론으로부터 출발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이 보편타당한 경제법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경제자료와 괴리된 경제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일지라도 현실적 유용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계량경제학은 추상적인 경제이론에 경험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과 통계학 같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량 경제학은 후자와 다른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량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량 경제학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와 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현상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분석의 틀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대한 대규모 관측 자료가 활발하게 이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e-ticket과 같은 인터넷 상거래자료 및 전자 스캐너를 이용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자료 등이 그것입니다. 계량경제학의 최근 연구 동향 중 하나는, 이러한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중전의 시장 수준의 총합적 자료의 분석에서 사용된 모형과 다른)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행위를 보다 잘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모형의 개발과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계량경제학자는 경제현상에 대한 깊은

계량경제학을 공부하며

통찰력과 높은 수준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두 개의 요건을 모두 균형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학자의 주장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현실과 유리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요건은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방법론의 이해는 경제현상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학도는 경제이론의 정확한 이해와 직관을 갖기 위해 힘을 뿐 아니라 자연과학 및 기타 학문의 방법론을 익히는 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력

1. 학력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199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83

2. 주요논문

Consistent Testing for Stochastic Dominance under General Sampling Schemes (with O. Linton and E. Maasoumi) (2005),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 pp. 735-765.

Nonparametric Estimation with Aggregate Data (with O. Linton) (2002), *Econometric Theory* 18, pp. 420-468.

Consistent Bootstrap Tests of Parametric Regression Functions (2000), *Journal of Econometrics* 98, pp. 27-46.





박 지 형
경제학부 부교수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록 학부 소식지를 통해서이지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귀국한 시기는 작년 7월말 쯤인 듯하 더위 속 이었는데,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에서 국제무역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국제무역학 분야에서 새롭게 연구되어 오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와 정치경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1999년 11월 30일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분야의 장관급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새로운 협상 라운드에서 이야기될 주요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이 도시 곳곳에서는 WTO와 세계화(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데모(demonstration)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4만에서 6만 여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경찰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 데모 때문이었던, 혹은 국제적인 노동 기준(labor standard)에 대한 논의를 협상의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려 했던 당시 미 대통령 클린턴 때문이었던, 결국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새로운 협상 라운드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합의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세계 각국이 주요 의제에 합의하고, WTO의 새로운 협상 라운드는 시애틀 라운드가 아닌 도하 라운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의 WTO 장관급 회의가 실패한 직후인, 1999년

12월 4일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Univ. of Washington)에서는 여러 저명한 국제 경제학자들이 모여 "WTO and World Trade"란 제목의 학술대회를 열었고, 미국의 대학에 직장을 잡고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토론자로 이 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WTO의 새로운 협상이 “시애틀 라운드”로 시작한 직후에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에 관한 경제학술대회라는 전시효과를 노렸던 학술대회의 주최자에게는 당시 WTO회의의 실패가 아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애틀의 학술대회는 국제무역질서의 형성에 관련한 WTO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이해와 그 당시 WTO 반대집회에 참여했거나 그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의 WTO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무역학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의 발생 원인과 그 결과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여러 경제학자들이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각국의 무역정책의 형성과정과, 국가간에 무역정책을 조율하는 성격을 지닌 WTO 및 기타 무역협정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정책결정의 주체인 정부 및 의회가 단지 국가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한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무역정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이익집단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하원(the U.S. Congress)의 북미자유무역협정과 WTO의 인준투표를 분석한 한 논문은, 업계와 노조가

국제무역질서와 정치경제

하원의원들의 인준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무역정책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무역정책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WTO를 통한 무역협상은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한 것이라는 통속적 해석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WTO에 관한 중요 논문들은 WTO의 “최혜국대우조항(the most favored nation clause)”이나 “상호주의원칙(the reciprocity principle)” 등이 국가들로 하여금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협상 당사국간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조절하여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줍니다. WTO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WTO가 노동 조건이나 환경기준에 대한 논의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고 무역정책에 대한 친(親) 자유무역적인 협상에 집중함으로써, 노동 및 환경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최근 논문은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노동 및 환경기준의 저하에 대하여 WTO에 이미 존재하는 “non-violation complaints” 제도(합의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배가 아닐지라도, 어떤 정책변화가 무역에 영향을 줄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를 이용하면 이러한 기준의 저하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무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국제무역정책 내지

질서에 관한 국가간의 협상들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이러한 협상들은 농수산물 개방, 서비스산업의 자유화 등 중요한 의제들을 놓고 도하 라운드에서 진행 중입니다. 수출입의 비중이 국내생산대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정책의 변화와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무역정책의 결정과정과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학 분야의 발전은 전통적인 국제무역학의 분야와 더불어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약 력

- 1. 학력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1996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199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90
- 2. 주요논문
Dynamic Pricing in the Presence of Anti-dumping Policy: Theory and Evidence (with Bruce A. Blonigen) (2004), *American Economic Review* 94 (1), pp. 134-54.
Gradualism in Trade Agreements with Asymmetric Countries (with Eric W. Bond) (2002), *Review of Economic Studies* 69 (2), pp. 379-406.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of Asymmetric Size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0 (2), pp. 473-95.

NEWS

1. 교무

1) 교수동정

- 이창용 대학원 이론경제학전공주임 겸무 (2005. 8. 1 ~ 2007. 7. 31)
- 이철희 대학원 응용경제학전공주임 겸무 (2005. 9. 1 ~ 2007. 8. 31)
- 홍원탁 정년퇴임 (2005. 8. 31)
- 홍원탁 명예교수 (2005. 9. 1)
- 최병선 신규임용 (교수) (2005. 9. 1)
- 황윤재 신규임용 (교수) (2005. 9. 1)
- 박지형 신규임용 (부교수) (2005. 9. 1)
- 이창용 재단법인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2005. 9 ~ 2009. 9)
- 정기준 재단법인 제원연구재단 비상임 감사 (2005. 11 ~ 2006. 2)
- 이인호 교수 승진 (2005. 10. 1)

2) 200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일자: 2005. 8. 30 (화)
- 학위수여자
박사 : 신현열
석사 : 박웅용 외 12명
학사 : 이주연 외 52명





2. 학생

1) 2005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생 선정

- 학부 768명 중 250명 수혜
- 대학원 174명 중 50명 수혜

2) 2005학년도 2학기 향상 장학금 지급

- 대상 : 경제학부생 20명

학 번	성 명	금액 (단위 : 원)
2001-10796	오 진 훈	1,788,000
2003-10435	김 신 영	1,788,000
2003-10465	김 준 영	1,788,000
2003-10499	노 승 민	1,788,000
2003-10670	이 수 련	1,788,000
2003-10740	장 윤 정	1,788,000
2003-10777	조 성 태	1,788,000
2001-10774	성 진 규	1,788,000
2001-10791	염 철 민	1,788,000
2001-10806	윤 참 나	1,788,000
2003-10425	김 새 암	1,788,000
2000-10723	민 병 준	1,755,000
2000-10864	최 창 규	1,755,000
2001-10828	이 의 정	1,755,000
2002-10500	남 궁 정	1,755,000
2002-10459	김 은 진	1,755,000
2002-10507	라 미 령	1,755,000
2002-10513	박 민 경	1,755,000
2002-10612	윤 선 영	1,755,000
2002-10701	임 진 호	1,755,000
합	계	35,463,000

NEWS

3. 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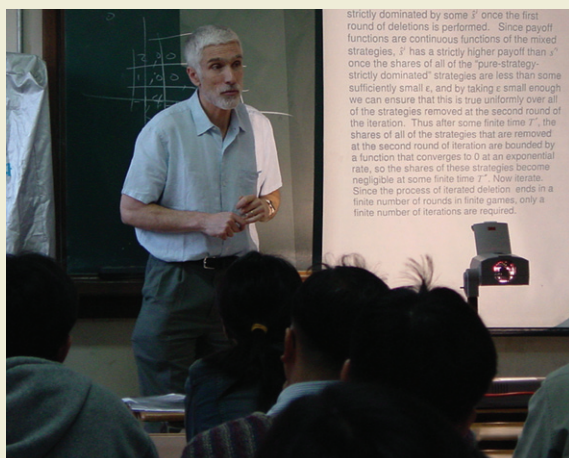
1) 2006학년도 대학원 전기 모집

- 일 자 : 2005. 11. 4 (금)
- 석사과정 56명 합격 (연구자과정 42명, 전문가 과정 14명)
- 박사과정 10명 합격

4. 행사

1) 노벨상 수상(후보)자 초청 강연

- Nobuhiro Kiyotaki (런던정경대학교 교수)
기 간 : 2005. 3. 21 ~ 2005. 3. 26
주 제 : Liquidity, Business Cycles, and Monetary Policy
- Richard Rogerson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
기 간 : 2005. 5. 16 ~ 2005. 5. 21
주 제 :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Deterioration of European Labor Market Outcomes



경제학도와 '균형'



이 상 주
박사과정

박사과정 학번을 부여 받고 벌써 네 학기째, 이제 서서히 논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일단 뒤로 하고 마지막 학기를 무사히 치러내기 위해 눈앞의 과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여전히 난해한 계량경제학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을 때 꼭 마무리 지어야 할 미션과도 같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오늘도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적당한 STATA 메뉴얼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박사과정이 되면 시험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영어발표 수업은 나에게 또 다른 종류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 저러한 압박감들로 머릿속을 채우며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치기만 바라고 있던 나에게, 갑자기 ‘글’을 써달란다. 무시로 조교실 문을 드나들며 필요한 도움들을 감사히 받아왔던 나에게 조교실 모 학형의 사람 좋은 얼굴이 갑자기 빔쟁이의 얼굴로 보였다. 난 책상 앞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하면서 과제목록을 추가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 곱지 않았던 과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과제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과제들은 나를 닦달하고 코앞의 시계를 보게 하였지만 이 과제는 내 시선을 먼산으로 보내주었다. 경제학을 업으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대학원 진학 이후 경제학을 접하면서 가졌던 생각의 단상들을 다시 끄집어 내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경제학도에게 ‘균형’이라는 단어만큼 익숙한 단어는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처음 접했던 수요-공급 곡선과 그 결과물인 균형 가격은 나에게 경제학을 어렵게나마 인지시켜 주었고 대부분의 미시교과서의 후반부를 장식하였던 일반 균형이론은 처음으로 오르고 싶은 산이 되어 주었다. ‘균형’이라는 것은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손과 같아서 ‘경제’氏의 몸에 발생한 모든 병을 치료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대학원에서는 더 이상 ‘균형’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 하였다.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균형’은 모든 질병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나 어울릴 듯한 단어였다. ‘균형’이라는 것은 몇 개의 방정식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대학원에서의 수업은 수 많은 질병들에 대해 각각의 증세를 어떠한 수단으로 어떻게 호전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나는 그러한 증세와 수단들을 듣고 주위 담기에도 바빴다.

그렇게 허겁지겁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늘 첫 번째 순위로 원하였던 능력은 경제학적 직관이었다. 이론적인 모델을 세우고 수리적 기법을 동원하여 해를 찾는 일이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일은 모두 경제학적 직관이 선행된 후 이러한 직관을 이해시키는 수단들에 불과하다(그러나 이러한 수단들만으로도 경제학은 충분히 골치 아프고도 매력적이다). 여러 강의와 교재와 논문들을 접하면서 그러한 직관이 내 안에서 쌓이기를 고대하며 대학원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경제학적 직관을 위해서는 경제학 밖으로의 눈길도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behavior)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 동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학적 직관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자가 사회학, 정치학, 법학, 철학 및 심리학과 같은 여타 학문적 사고도 활용할 수 있다면 경제학에서의 ‘균형’에 이르는 길을 더욱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는 대학원생이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닌 것 같다. 경제학부 대학원생의 생활이란 것이 학기 중에 사회학이나 법학 같은 비전공 서적을 가까이하기는 어려운 상황일뿐더러 RA라도 하게 될라치면 방학이라도 온전한 내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시간 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타 학문적 사고라는 것도 경제학적 바탕을 기본으로 한 후에야 그 놓일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될 각 분야의 경제학적 ‘일반균형’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은 경제학도로서의 학습의 ‘균형’을 얻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 ‘균형’은 경제학적 바탕을 이루는 경제학 학습과 이를 지원해줄 비경제학적 관심과 사고의 해로써 얻어질 것이다. 경제학도로서 당연히 그 무게중심을 경제학에 둘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개별 경제학적 관심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사안별로 필요한 학문적 연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동기로 비경제학적 분야로의 접근이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겠다. 어느 한 상태가 경제학적 학습의 균형은 아닐 것이다. 다만 경제학적 분석기법에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어 줄 수 있는 여타 학문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원 시절에 이러한 관심을 키워나감으로써 좀 더 다양한 사고를 모색해 보자는 말을 학우들에게 하고 싶다.

계절은 때가 되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학우들은 다음 이 계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으로 교정 안 또는 밖에서 곱게 뽀내는 단풍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나 또한 그럴 수 있기를 바래본다.

공교육 평준화에 의한 사교육 시장 형성



고 영 우
학부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지면으로 동문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육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며, 평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짧게나마 공교육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교육 문제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닌 지난 십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각 시대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략적인 논의는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 문제로 요약 됩니다. 특히, 현재 교육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고교 평준화와 사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평준화의 긍정적 효과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입시 위주 교육문제를 해소하며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져오고 오히려 과열과외를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학교 선택권의 제한과 사교육 시장 형성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제한적으로 실시된 이래, 전국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 평준화 지역과 학교 선택권을 허용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경제학자 Hoxby가 지적한 대로, 학교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이에 노출되거나 이로 인하여 경쟁 위협을 받는 학교들은 교육 내용의 향상과 혁신에 경주하게 되지만 평준화 제도하의 학교들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 하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실증적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향상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평준화 지역의 학교 교육의 수준이 높아서라기 보다 이들 지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도시 주민들이 비평준화가 시행되는 중소도시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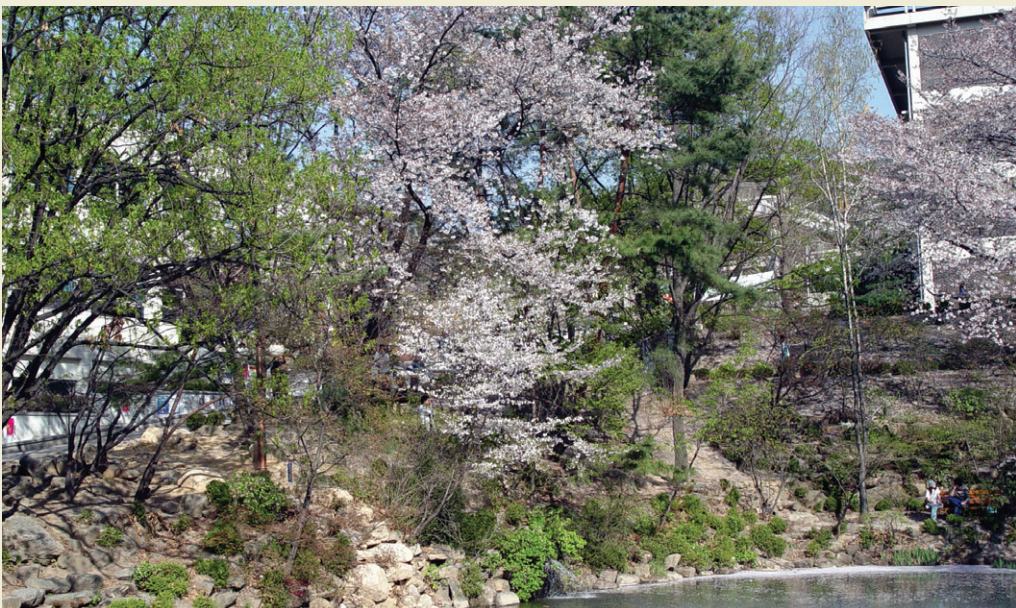
이 큼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과외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학력 부모가 과외를 더 많이 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은 학교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이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과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평준화 정책은 입시 위주 교육을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보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은 상이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하여금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학습을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저하됩니다. 따라서 공교육에 만족할 수 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즉, 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과외를 통하여 대학 입시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도록 유도합니다. 한편 대학 입시가 현재와 같은 상대 평가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강력한 독점력을 갖게 됩니다. 한 학생이 받는 교육을 다른 학생이 똑같이 받을 경우 그 학생은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족집게 과외'를 독점적으로 소비할 유인 생기고, 이는 이들 과외에 대한 수업료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즉, 학교 교육 평준화 정책이라는 정부의 관료적 통제가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보다 과외를 통하여 대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회자 되는 평준화 정책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의 출현을 제한하고 학생간의 학력 격차나 학교 간의 수준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깁니다. 한편 위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교육 정책이 정부에 의한 교육 내용의 획일적인 규제 하에 있다는 점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평준화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인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획일적인 규제를 했습니다. 각 학교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 하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영재고등학교, 각종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은 형태의 학교의 설립으로 반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준화 정책이 과연 형평성을 제고하는가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등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미 달성된 지금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오히려 평준화 정책이 과외를 통해 부유층 자녀들을 일류대학으로 진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야기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공교육 평준화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짧은 지면을 핑계 삼아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직 인적사항을 보내주시지 않은 동문이나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보내 주시면 금년 6월로 발간 예정된 제15호의 동창 소식란에 게재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Fax, E-mail, 우편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E-mail로 보내실 때는 경제학부 홈페이지 (<http://econ.snu.ac.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면 경제학부 소식지를 on-line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 명		입학년도, 학과	
주 소			
직 장 명		직 위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알리고 싶은 소식 : (동문 여러분 개인의 신상 변화 뿐만 아니라 동기회 소식이나 모임 등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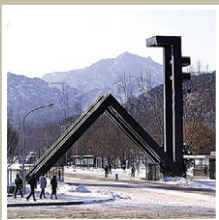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51-742
경제학부 소식지 담당자 앞

jtobin@snu.ac.kr



101 후생관안내도

매점/제5식당/도장열소
문구/복장/양화/운동구
여행사/컴퓨터/양품/가방
사진/보험/전자/촬영용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우)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02)-880-6359, 6360, 6361

FAX : (02)-886-4231

<http://econ.snu.ac.kr>

E-mail : jtobin@snu.ac.kr

〈경제학부 소식지〉 제14호

발행일 2006년 1월 13일 / 발행인 이준구 / 편집인 김영식 / 편집 석병훈